

자연의 경험과 창작

- 하이퍼네이처 개념으로 본 로렌스 헬프린의 작업 -

박정은*,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조경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의적인 자연성 개념을 하나의 스타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는가? 만들어진 자연을 그저 하나의 자연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가? 조경설계에서 자연을 다루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질문에 실천적으로 응답한 로렌스 헬프린(Lawrence Halprin)은 “자연경관의 경험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험으로 바꾸는 행위가 조경예술의 본질”(Halprin, 1988)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창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자연, ‘하이퍼네이처’ 개념을 들어 자연의 모호한 개념을 환기하고 조경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과 실천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로렌스 헬프린의 자연관과 하이퍼네이처

헬프린의 자연에 대한 관심, 학문적 배경, 작품 활동을 탐구함으로써 그가 추구한 ‘자연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렸을 적 살았던 집 근처 숲의 비밀 은신처로부터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의 과정을 인지하고 물, 바람, 침식 등 자연의 프로세스를 탐구하게 된다. 특히 시에라 산맥의 거대한 풍경에서 느낀 위압감과 산악 하이킹을 통해 느낀 해방감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자양분이 되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생물학적, 정서적인 반응이며 이는 곧 조경설계의 배경이 되는 필수 요소”(Halprin, 1988)가 되었다.

이후, 그는 “크리스토퍼 터나드의 책을 읽고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하버드 GSD에 입학해 발터 그로퍼우스, 마르셀 브루이어 그리고 조경가 크리스토퍼 터나드의 영향 아래 조경 학업을 이어나가며 바우하우스의 자연관을 흡수하게 된다”(Halprin, 1986). 그의 자연관은 “자연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프로세스를 최적의 측면에서 포착했다는 데 그 특색이 있으며”(김진희, 1993), 그의 조경작품에도 자연 과정의 결과를 강조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는 정서적·심리적·신체적 탐구를 통해 경관과 사람들의 본질적인 연결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 원리의 지침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또한, 자연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조경이라는 창조 행위를 통해 “일련의 자연 프로세스의 변성이 드러나는 경험 기반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Halprin, 1988)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다면적 경험을 통해 철학적 사유와 언어에 기반한 미적 언어의 문법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었고 그의 실험을 통해 삶에 스며든 조경 작품은 삶의 연속 선상으로서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속에서도 자연에의 일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그가 남겼던 여러 논문과 에세이를 통해 자연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승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

‘초자연’이라고 번역되는 hypernature는 nature에 과도하고 지나치다는 뜻이 담긴 접두사 hyper-가 붙은 형태로, 인공적이지만 진정성을 가진 직조된 자연을 일컬으며 과장된 표현을 통해 구현된다. 하이퍼네이처는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요소, 현상, 정서를 이용하지만, 매우 압축적으로 그러나 생태학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재구성된 자연은 자연환경의 생물 종, 크기, 모양, 질감 등을 이용해 과장되게 구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인지를 극대화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이퍼네이처는 일상에서 종종 놓쳐버리고 마는 사회적 정의(지속가능성, 환경 정의, 평등)를 일깨우는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네이처적 접근은 의도적으로 경관에 개입하고 언어를 밀도 있게 탐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헬프린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의 철학이 반영된 과장된 자연이다. 자연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포착해 독자적 법칙을 형성한 헬프린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성질은 결국 하이퍼네이처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콘크리트의 배열을 통해 시에라 산맥을 추상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창조적 종합화를 통해 자연을 세심하고 예민하게 다뤄냈다. 복잡한 디자인 방법론과 파생된 여러 활동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품들에는 스케치부터 그의 독특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 해방감, 겸허함, 정서적 풍요가 포함되며,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도시 환경 속 하이퍼네이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자연, 하이퍼네이처 개념은 헬프린의 조경 작업 과정을 통해 조경설계가 다루는 자연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조경 작품이 우리의 정서적·심리적 인식을 전환시키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는 어떤 방식을 통해 하이퍼네이처를 빚어냈을까.

3. 자연의 경험과 창작

3.1 자연 프로세스의 인지적 이해

헬프린의 작업은 주로 자연에서 포착된 정서·심리·경험에 기반한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논할 때 우리는 주로 시각을 통한 지각 차원에 대해

논의하지만, 그의 자연 관찰은 지각(perception)이 아닌 인지(cognition)에 가깝다. 헬프린의 설계 언어 중 하나인 'RSVP 사이클'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실험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해 결과보다 과정을 더 강조하는 체계이다"(Halprin, 1970). 첫 번째 R(resource)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Freeway Park의 설계 과정 중 설계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R을 기반으로 한 분석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폭포의 외관은 물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언어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 참조). 물을 활용한 공간 형태인 분수를 만들기 위해 폭포의 본질적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장애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 물줄기가 부서지는 방식, 높이에 따른 낙하 효과, 음향 효과와 빛의 질감 등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연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물을 통해 참여를 이끄는 신체적·정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물리적 상호작용까지도 고안한다. 단순히 인간의 개입이 없었던 자연(mother nature)의 모습을 모방하려고 하기보다 관찰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이해를 불러일으켜 이를 설계에 결합하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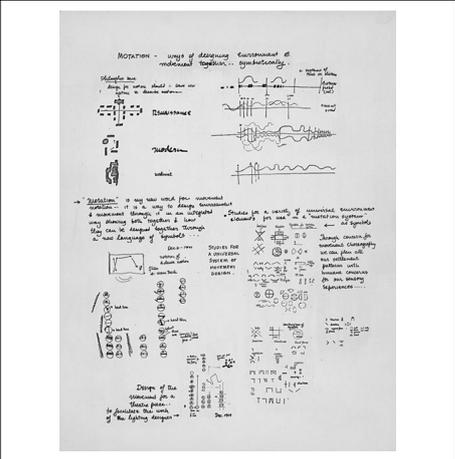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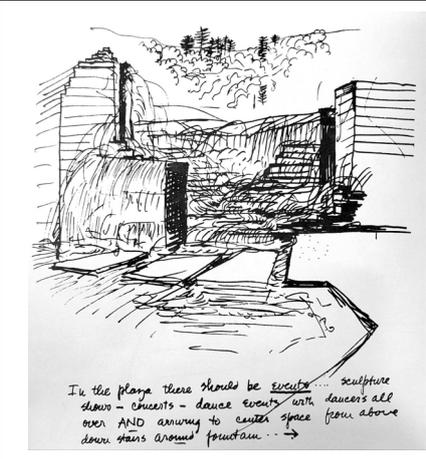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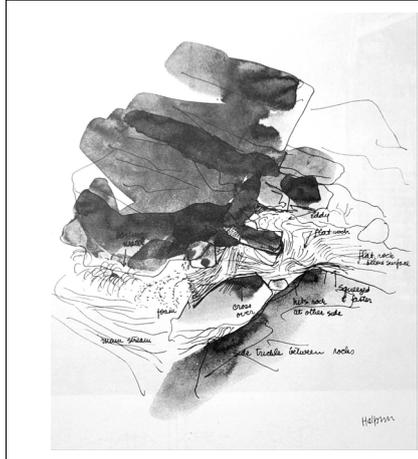


Figure 1. Drawing of the High Sierra

Figure 2. Thumbnail sketch of Lovejoy Plaza

Figure 3. Motation drawing

3.2 참여를 통한 점진적인 추상화

구성 요소들의 인지적 이해를 넘어 창의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추상화 과정은 물질, 형태, 현상까지 내포한다.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생태학적이거나 인간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헬프린은 자연 관찰 드로잉을 통해 소통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직접 솔루션의 참여자가 된다"(Halprin, 1963)고 언급한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과정 일부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했다. 특히 모테이션(motation)은 움직임(movement)과 기록(notation)의 합성어로, 현대 도시의 움직임과 움직임에서 생기는 복잡한 상호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분석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움직임을 주의깊게 기록하는 시스템이다(Halprin, 1986)(Figure 3 참조).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악보를 모든 예술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과정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여 악보를 통해 과정을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한 점수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장소, 다른 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조 행위에 참여하여 피드백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Halprin, 1963).

공간을 통한 움직임과 구성의 방식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했기에 고정된 그림이 아닌 악보처럼 표기할 수 있는 동작 표기법을 개발한 것으로, 모테이션의 목적은 정적인 장소가 아닌 공간을 통한 동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한 시도였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러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구현했다.



Figure 4. Ira Keller's Forecourt Fountain (Photo by Charles A. Birnbaum, 2008)

Figure 5. Fountain at Freeway Park (Photo by Charles A. Birnbaum, 2006)

3.3 재창조를 통한 하이퍼네이처 형성

헬프린은 대부분의 설계에 ‘바위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High Sierra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김진희, 1993). Ira Keller’s Fountain에서 보이는 바위는 칩식된 바위의 특성을 반영하며 설계가의 창조성을 통해 재구축된 자연환경으로,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바위에서 느껴지는 덩어리감과 시시각각 변하는 폭포의 흐름을 추상화했으며, 광장 전체를 구성하는 계단식 평면은 인간과 자연의 유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형태로의 회귀가 아닌 자연의 추상이라는 측면을 추가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Ira Keller’s Fountain 프로젝트는 도시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재창조하는 것이었다(그림 4 참조). 다시 창조하는 것, 즉 재창조(re-create) 혹은 재건축(re-build)된 자연은 하이퍼네이처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의 인지적 이해, 자연 과정의 점진적인 추상화를 통해 창조적 과정에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도시 자연을 형성하게 된다. 형상과 기능, 다각도의 관점 등을 도입한 과감한 시도로 자연 개념을 재확립한 것이다.

4. 나가며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지 과정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연은 새로운 감각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공 환경에 새로운 자연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하이퍼네이처로 분류될 수 있다. 로렌스 헬프린의 자연관과 작업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적 이해, 점진적인 추상화, 재창조를 통해 조성된 하이퍼네이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며 탄력적인 관계임을 알게 한다.

참고문헌

1. 김진희(1993) 로렌스 헬프린론. 조경학연구 15: 103-134.
2. Halprin, L.(1963) Cities. MIT Press.
3. Halprin, L.(1970) The RSVP Cycles: Creative Processes in the Human Environment, George Braziller.
4. Halprin, L.(1986) Changing Places.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5. Halprin, L.(1988) Nature into landscape into art. Ekistics 55(333): 349-354.